

## 선거경합도와 투표율의 관계: 한국 역대 국회의원선거 통합분석\*

최정욱 · 문은영 | 건국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후보자 간 득표율이 접전일 때 과연 투표율이 높아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화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결과를 대상으로 선거구별로 선거경합도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로 선거구별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이인 선거경합도와 지역주의 변수 그리고 후보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 등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박빙일수록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히 투표율과 선거경합도에 관한 스캐터플롯을 그려보았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보다 정확한 통계치 등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주의가 여전히 투표율 증가에 기여하고 이 변수를 통제할 때에도 선거경합성이 투표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본다.

**주제어** |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후보자수, 투표율, 국회의원선거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매우 유익한 논평을 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 I. 서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문구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이것은 그만큼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덕목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투표참여와 불참 그리고 이 각각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민주선거행태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당장 투표율을 선거의 민주성이나 정당성과 연결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천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선거의 참여와 불참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후보자 간의 득표율이 접전일 때 과연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인가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투표결과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가정이다. 그리하여 마치 선거 관련 사전여론조사를 통하여 현재 1위 후보자가 박빙으로 이기고 있다거나 이기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도를 넘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사를 도모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박빙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대단한 관심사인양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또한 투표당일 투표 참여율이 높을 때는 투표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가 박빙 또는 접전이라고 하여 반드시 투표율이 높다는 보장은 없다. 가장 단순한 사례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특정정당이 지배적인 지역이고 오히려 특정정당의 압도적 우위가 없는 곳에서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결과를 대상으로 선거구별로 선거의 접전 정도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 국내외 관련 문헌검토를 한 다음에 경험적 검증을 위한 가설과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자료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검증 결과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19대 총선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역은 영남 7곳, 호남 2곳, 충청 1곳이며,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역은 경기 8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다.

## II. 기존 연구 검토

### 1. 선거경합과 투표참여에 관한 해외 연구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ve), 책임성(responsible), 반응성(responsive)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대의민주제의 운영척도로 볼 수 있다. 투표참여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이론(socioeconomic status theory)이다. 이 이론을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미시적 수준은 개인의 투표참여 행위로서 유권자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는데 유권자의 교육, 소득, 거주지, 계층 등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Lazarsfeld et al. 1944; Millbrath and Goel 1977; Verba and Nie 1972;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거시적 수준에서 적용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그 구성원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소득수준의 향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시간을 증대시켜줌에 따라 투표비용을 낮춰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설명한다(Filer et al. 1993).

두 번째 이론은 다운스(Downs 1957)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모델인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다운스는 인간의 투표참여 또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투표할 때 기대되는 효용이 기권할 때 기대되는 효용보다 클 때는 투표하며, 반대로 작을 때는 기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기 때문에 기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투표참여의 역설(paradox of voting)이 성립한다. 이에 다운스는 시민의 의무(civic duty)를 추가하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으로서 투표한다고 한다. 라이커와 오더숙(Riker and Ordeshook 1968)은 시민의 의무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 정치적 효능감 확인 등 투표 행위 그 자체로서 발생하는 모든 내재적·표현적 만족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도주의적 이론들은 중범위 수준의 분석에서 비례대표제나 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유형, 의무투표제 실시 유무, 정당체제의 성격과 같은 정치·제도적 요인에 주목한다. 이들은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국가가 다수대표제를 선택한 국가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고 설명한다(Blais and Carty 1990; Norris 2004).

투표참여에 대한 일반이론을 넘어서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투표참여 즉 투표율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인 후보자 간 선거경쟁을 의미하는 선거경합(closeness)에 관한 기존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선거경합으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유권자들 자신이 행사하는 한표의 가치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집합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Cox 1988). 또한 유권자 측면만이 아니라 선거경합에 대한 엘리트들의 반응을 강조하여 박빙인 선거구에서 정당과 정당지도자 또는 후보자는 더 많은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을 강조한다(Shachar and Nalebuff 1999).

이에 콕스와 멩거 등은(Cox and Munger 1989; Jackson 1997, 2002; Hillygus 2005; Nickerson 2005) 정당의 엘리트들은 선거경합이 치열한 선거구에 집중하여 선거운동을 펼치고 후보자들도 선거홍보에 적극 임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보획득 비용이 감소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선거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이에 유권자는 늘어난 정보를 통해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니게 되어 후보들의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투표참여에 대한 기대효용에서 이익을 증대시켜 투표율을 상승시킨다고 보았다(Aldrich 1993).

많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포웰(Powell 1986)은 1970년대 17개 국가의 제도와 투표율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경쟁적인 선거구(nationally competitive districts)”는 높은 투표율의 경향을 보이고, 이것은 정당과 유권자 모두가 국가의 모든 곳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가도록 독려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잭먼(Jackman 1987)도 19개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와 1960~70년대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선거경쟁구조, 단원제, 의무투표 조항이 높은 투표율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선거불비례성, 다당제는 낮은 투표율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후크 등(Lehoucq et al. 2003)은 1985년, 1990년 및 1995년 과테말라 지역선거구에서 경쟁률이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조사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이런 경향은 1972~1996년까지 실시된 미국대선에서 각 주별 투표율에 대한 횡단시계열분석(Smith 2001)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브리타니(Brittany)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에서도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Dubois and Leprince 2016), 독일 바바리아(Bavaria) 주의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장선거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선거가 경합이 될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2015).

한편 파우벨-에이마르와 프랑스와(Fauvelle-Aymar and François 2006)는 프랑스의 결선투표 분석결과 선거경합이 선거참여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에서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로 바젤과 실버버그(Barzel and Silberberg 1973)는 주별 주지사선거에서 선거경합이 투표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발견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킨 마추사카와 팔다(Matsusaka and Palda 1991)는 우선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한 선거경합에 관한 가정(Downsian Colsoness Hypothesis)을 두고서,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가 한 표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에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또한 선거경합의 영향력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량적인 방법과 데이터의 선택을 개인적으로 할 것인지 집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정하기에는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후 마추사카(Matsusaka 1993)의 연구에서는 1912년부터 1990년까지의 캘리포니아선거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에 체계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유권자들은 그들이 투표에 결정적일 것이라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만 선거가 박빙일 경우 정당엘리트들의 선거동원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 한국의 선거경합과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의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우선 도시화 규모에 따라 도시의 투표율은 낮고 농촌의 투표율은 높은 '도저촌고' 현상을 들 수 있다. 황아란(1996)은 1980년대 이후 제11대 총선부터 제15대 총선까지 줄곧 '도저촌고' 현상은 지속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투표율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역주의로 인해 후보자 간 경쟁성을 하락시켜 예측성을 증대시키고 예측성의 증대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동기가 낮아지는 것이 명백하므로 투표율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정대화 2000)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선거결과에 관심과 기대가 높아 지지 정당으로부터 얻는 주관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주장(황아란 2010)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지역주의 이외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가치관과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는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라는 세대효과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조진만·최준영 2006; 정진민·황아란 1999; 이현우 2010).

선거경합(closeness)과 투표참여 즉 투표율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선거경합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크게 득표율(황아란 1996; 이종수 2000; 조성대 2006; 강경태 2008; 류재성 2009; 김성은·엄기홍 2013)과 득표수(한정훈·강현구 2009; 정수현 2012; 박경미 2014)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황아란(2008, 2011a, 2011b)은 이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2008년 연구에서는 1·2위 득표율 차이를 100에서 뺀 수치, 즉  $100 - (1\text{위 득표율} - 2\text{위 득표율})$ 로 조작화했고, 2011년 연구에서는 1위와 2위 득표수의 합으로 1위와 2위 득표수의 차이를 나눈 값을 1에서 뺀, 즉  $1 - [(1\text{위} - 2\text{위}) / (1\text{위} + 2\text{위})]$ 로 측정하였다.

윤성호·주만수(2010)의 연구에서는 선거 경합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 이외에 득표수의 차이, 엔트로피, 그리고 경쟁도지수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는데, 경합도 변수를 달리 사용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장단점 이외에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에서 어느 하나의 월등한 경합도 측정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2)</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보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적다는 사실 자체가 접전의 선거이며, 유권자의 1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비교 가능한 1위와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거경합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출구조사 결과나 선거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연관성이 있는 지표이다.<sup>3)</sup>

이제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선거경합과 투표율이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황아란 연구(2011 a; b)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2) 선거경합 측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성호·주만수(2010) 연구 참조.

3)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경합이란 용어도 연구자별로 당선경쟁, 선거경쟁, 당선경합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결과들에서 선거경합이 치열할수록 투표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아란 1996, 2008; 조성대 2006; 한정훈·강현구 2009; 윤성호·주만수 2010). 다만 이 연구들은 17, 18대 국회의원선거와 제5회 동시지방선거라는 단일 선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일 선거만이 아니라 여러 선거를 다루는 통시적 연구들도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례로는 류재성(2009)과 박경미(2014)를 들 수 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총 5회의 국회의원선거를 분석한 류재성(2009)은 후보 간 경합이 치열했던 지역의 평균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투표율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긍정적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패권적 정당지배지역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패권적 지배지역 여부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하여 패권적 정당지배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박경미(2014)는 서울시 집합자료만을 대상으로 1987년~2010년 사이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거경쟁도와 투표율의 관계를 서울시 전체와 서울시의 선거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 선거경쟁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전체 차원에서 치열한 선거전은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구별 선거경쟁도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대선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총선에서 선거구의 선거경쟁도는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온 반면에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왔다.

또 다른 지방선거 연구에서도 선거경쟁과 투표율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종수(2000), 정수현(2012)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선거경쟁과 투표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거나, 통상적인 가설과는 달리 선거경쟁의 격차가 늘어날수록 즉 선거경쟁률이 하락할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단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전국선거에서도 선거경쟁이 투표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사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강경태(2008)는 민주화 이후 총 14회에 걸친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분석하면서 1·2위 득표율 차이가 심할수록 투표율은 미약하게나마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지역주의 영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선거경쟁은 하락하지만 투표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본 것과 부정적으로 본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본 연구들은 단일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부정적으로 본 연구들

은 대체적으로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오거나 선거경합이 치열하지 않은데도 투표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통시적 분석에서도 서로 상이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재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에 국회의원선거의 관찰수를 보다 확대하고 기본 경쟁의 단위인 선거구 결과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류재성과 강경태의 연구가 경쟁률과 투표율이 어긋나는 이유로 지역주의와 투표율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지역주의 변수를 모델에 별도로 통제 변수로 명시적으로 삽입하여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선거인 1988년 제13대부터 제19대까지의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선거를 통시적·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석시기와 분석대상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기존연구들을 보완하여 재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선거경합도 이외에 다른 선거구 통제변수들도 같이 넣어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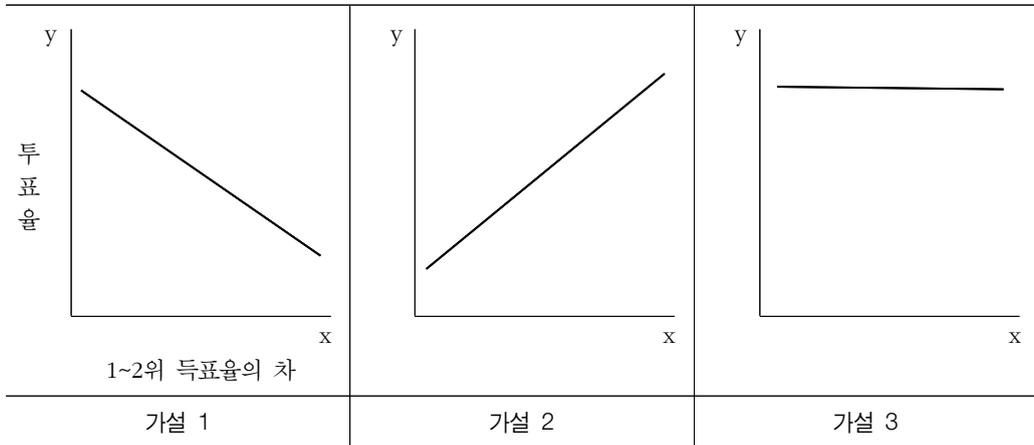
### III. 가설 및 경험적 분석

#### 1. 가설, 모델 그리고 자료

앞의 문헌 검토에서 투표참여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선거경합이 투표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글도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선거경합과 투표율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경험적으로 검증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연구들에 비추어 선거경합과 투표율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설은 다음의 3가지이다.

- 〈가설 1〉 선거가 접전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 2〉 선거가 접전이 아닐수록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 〈가설 3〉 선거에서의 접전과 투표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림 1〉 선거경합과 투표율 가설



위 가설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 x축은 선거경합을 의미하는 점선 정도로써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커지는 경합이 치열하지 않아 점선이 아닌 것이고, 다른 말로 0의 기준점인 즉 왼쪽으로 올수록 1위와 2위의 득표율의 차이가 작은 즉 경합이 치열해 선거가 점선인 것을 의미한다. y축은 투표율로 아래는 낮고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가설 1, 2, 3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 중 우리는 가설 1에 기초하여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선거구의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독립변수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경합도를 주요한 변수로 설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오는 1위와 2위 득표율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더불어 우리는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선거구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주의 성향의 선거구라고 함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는 호남, 그리고 경상남북도와 부산·대구·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영남 선거구를 의미한다.<sup>4)</sup>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거구가 지역주의 선거구라고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외 지역에 비하여 지역색이 강한 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주의 변수가 투표율

4) 여기서는 충청도 지역을 지역주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선거에서 해당지역을 지배하는 정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은 개별 선거에 특수한 변수가 아니고 선거경합도와 무관하게 투표율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선거경합도로 인한 투표율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역주의를 지적하고 있어서 이 변수를 통제할 필요도 있다. 이 지역주의 변수는 투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양의 효과)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통제변수로 우리는 해당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수를 모델에 삽입하였다.

이론적으로 우선 보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 이 후보자들이 동원하는 투표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또한 이 유권자에게 그만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선택지 부족으로 기권하려던 투표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변수는 또한 선거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측정하는 또 다른 자료일 수도 있다. 1위와 2위 간의 접전도 선거의 경쟁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단일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 역시 선거의 경쟁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게 후보자 수를 통제변수로 넣는 또 다른 이유는 독립변수가 1위와 2위 후보자만 조작한 것이기에 나머지 후보자들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을 가지고 단순한 회귀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해볼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에 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서 선거구가 도시지역인지 또는 농촌지역인지 여부를 또 다른 통제변수로 넣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첫째는 선거구를 도시와 농촌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농촌인구의 급락에 따라서 도농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가 전체선거에서의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크지 않다고 본다. 또 다른 이유는 무조건 많은 독립변수가 좋은 모델을 양산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논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최소한의 변수를 가지고 필요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보다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와 1위 2위 격차의 상호작용 변수를 삽입하여 선거경합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주요한 독립변수라면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선거경합도가 주요한 독립변수라면 이론적으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변수는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1위와 2위 격차가 지역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호작용변수가 없는 단순한 모델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선거결과 자료를 통합하여(pooled) 분석하는 것에 따른 오류가 있

을 수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2000년까지 4번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줄곧 하락하였기에 시계열성 자료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 3번의 선거에서 이러한 하향추세는 단절되고 투표율이 등락을 거듭한다. 시간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회귀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합횡단면자료분석(pooled cross-sectional data analysis)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시계열패턴분석을 하기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마저도 해당기간 7번 선거 중에서 초기 4번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따른 패턴은 무시하고 각 선거가 독립적인 선거인 것처럼 가정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sup>5)</sup>

이 연구의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제13대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실린 지역구 후보자 득표상황을 통해 1·2위 후보자의 득표율, 후보자 수 그리고 각 선거구별 투표율을 수집하였다.

## 2. 경험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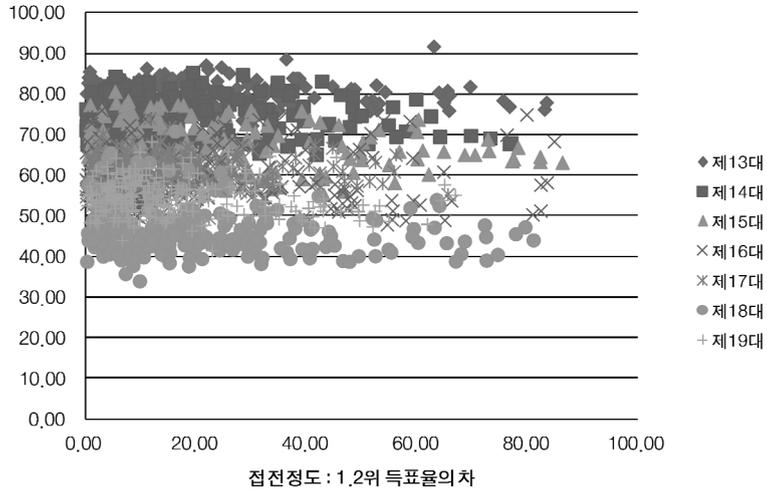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와 투표율 간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접전 정도가 치열할수록 투표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선거별로 접전이 심한 선거구에서 투표율의 높고 낮음의 범위가 위-아래로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어서 접전 정도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 역대 선거별 전국 통합 데이터는 <가설 3>의 그림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두 변수 간에 상관계수(-.007)는 실제로 매우 낮으며 이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역대통합 전국 선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과 달리, 지역주의 선거구와 비지역주의 선거구를 분리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의 선거구는 경합도가 투표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표 1> 참조). <그림 2>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5) 일부 논자들은 역대선거통합자료를 분석하는 데 패널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역대선거통합자료는 패널 자료가 아니다. 매 선거마다 구성원이 변경된다. 여기서 연구하는 기간 동안 선거인단이 변경되어 1988년 선거인단과 2012년 선거인단은 아주 다른 선거인단이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전제로 한 분석은 맞지 않다. 신규 구성원의 추가와 기존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선거인단의 변경과 이에 따른 투표결과 자료의 시간적인 차이는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6) 자세한 선거별 전국 통합 데이터 그림은 [부록] 전국 선거구 투표율과 경합도 스캐터플롯: 국회의원선거별 및 경상전라지역 도와 광역시별 참조.

〈그림 2〉 역대 전국 선거구 통합(n= 1,675)



〈표 1〉 선거경합과 투표율 상관분석

	지역주의 지역		비지역주의 지역	
	상관계수	관찰 수(n)	상관계수	관찰 수(n)
13대 총선	-.113	103	.410 **	121
14대 총선	-.344 **	110	.313 **	127
15대 총선	-.187 *	113	.160	140
16대 총선	-.354 **	94	-.001	133
17대 총선	-.204 *	99	-.221 **	144
18대 총선	-.365 **	99	-.144	146
19대 총선	-.400 **	97	-.196 *	149
역대선거통합	-.168 **	715	-.029	960
지역주의·비지역주의 지역 통합	상관계수: -.007 / 관찰 수(n): 1,675			

주: \*: p<0.05, \*\*: p<0.01

〈표 2〉 선거경합과 투표율 회귀분석

	표준화 계수(베타)			관찰 수(n)
	경합도	지역주의	후보자수	
13대 총선	.075	.377 **	-.332 **	224
14대 총선	-.126	.304 **	-.050	237
15대 총선	-.106	.322 **	-.041	253
16대 총선	-.334 **	.532 **	-.241 **	227
17대 총선	-.228 *	.362 **	-.100	243
18대 총선	-.335 **	.297 **	-.093	245
19대 총선	-.350 **	-.050	.357 **	246
역대선거통합	-.125 **	.242 **	.015	1,675

주: \*:  $p < 0.05$ , \*\*:  $p < 0.01$

로 보이는 이유는 보다 관찰값이 많은 비지역주의 선거구에서의 결과 때문이다. 비지역주의 선거구만 떼어서 통합하여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관계(-.029)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이것을 해당 연도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경우 통계적 의미가 무의미한 13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1·2위 후보자 간 득표율의 차가 작아질수록 즉 경합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지역주의 지역의 경우 초기인 13대, 14대와 15대의 경우에는 경합일수록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나, 16대 이후에는 경합일수록 투표율이 올라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중 13대와 14대 그리고 17대와 19대 이외에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단순히 상관관계 분석이나 스캐터플롯(scatter plot)으로 살펴볼 때보다 경합도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하다. 다른 두 변수를 통제할 때, 경합도는 역대선거 통합 결과에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면, 경합도가 13대만 투표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다 투표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14대와 15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sup>7)</sup>

지역주의는 예상대로 19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투표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19대 총선의 경우 지역주의 선거구에서 그렇지 않는 선거구보다 투표율이 경합도와 후보자 수를 통제할 때 오히려 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숫자는 19대 총선과 통합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예상과 반대로 투표율에 부정적이다. 즉 더 많은 후보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3번의 선거에서만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통합데이터는 예상과 부합하게 양의 수치로 나오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선거구의 명목상 후보자 수를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후보자 수를 사용하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의 후보자 간 경합도는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더욱 더 그렇게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역주의 색채가 투표율에 미치는 강한 영향을 통제하면 선거경합도가 높은 선거구일수록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3위 이하의 후보자 수가 더 많이 참여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늘어나게 되어 명목적으로 더 경쟁적으로 보이는 선거의 경우 오히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후보자가 많다고 하여 선거가 더 과열되고 유권자들이 더 선거에 열광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추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이 글에서는 선거구별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이와 선거구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결과 자료를 가지고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

7) 연도나 선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나온다는 것은 개별선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별선거속성 분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 같은 선거경합도도 그 내외적인 속성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경합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대통령선거와의 동시선거냐 아니냐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같은 선거경합도의 효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다른 자료나 방법으로 입증하고자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나 언론방송사 등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박빙일수록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우선 단순히 스캐터플롯을 그려서 살펴볼 때는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보다 정확한 통계치 등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접전으로 간다고 해서 투표율이 바로 올라간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투표율은 매우 많은 변수의 총체적 결과이고 선거경합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투표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색이 강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선거경합도 보다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투표율에 월등히 높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기존 문헌에 공헌한 것은 우선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하여 검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와 투표율 간의 관계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연구조사 결과를 두고 보다 엄밀하게 재검증하여 보았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서로 상반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지목된 지역주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모델에 넣어서 선거경합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지역주의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선거경합도가 투표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존 연구 중 일부에서 선거경합도와 투표율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온 원인으로 지역주의에 따른 높은 투표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와 달리 여전히 지역주의 변수가 투표율 증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모델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변수를 통제할 때 여전히 선거경합도가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선거구가 같은 전라남도 지역 선거구라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투표율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개의 선거구 중에서 만약에 한쪽의 선거가 더 접전이라면 이 지역구의 투표율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의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지역주의 정당 편향현상이 강한 선거구에서조차 실제로 1위와 2위의 득표율의 차이가 2/3(66%) 이상 크게 차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주의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접전이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선거구 내에서 대립하는 지배정당의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간의 대결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 지배정당의 후보자와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 간의 대결이 더 많이 이루어졌고, 그 차이도 박빙인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한 지역주의 선거구에서도 특정지역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색이 강한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오로지 지역주의 탓만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선거구 내에서의 인물들 간의 선거가 접전인 탓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하여야 하는 점은 언뜻 보기에 선거가 접전일 때 선거구별 투표율은 선거가 접전이 아닌 선거구들보다 “편차”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즉, 투표율의 평균만이 아니라 투표율의 편차도 접전일 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다만 관찰되는 사례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표결과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 즉, 이러한 편차의 문제가 이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1위와 2위 간의 득표율 편차가 심한 지역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관찰이 안 되는 착시현상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약에 1위와 2위 간의 득표율 편차가 많이 나는 지역구의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한다면 이러한 비접전구역에서 투표율의 편차는 지금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차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투표율 평균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거경합성과 투표율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모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점은 선거경쟁을 측정하는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는 후보자의 수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로 삼아서 측정하여 보았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님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론적으로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가 더 경쟁적으로 되어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 자료는 이와 반대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거경합성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지만, 이러한 투표율 증가가 잠재적인 투표불참자의 두 가지 부류 중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잠재적인 투표불참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선거경합성을 정의한 1위와 2위 후보자를 선호하였던 부류와 이들 1위와 2위 후보자가 아닌 제3의 후보자를 선호하였던 유권자들이다. 선거가 경합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선거에 불참하였던 유권자들이 참여로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유권자이었던지 미지수로 남는다. 이것은 별도의 경험적 연구로 밝혀야 하는 과제이지만 여기서는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합성과 투표율 관련 이론은 후보자 수가 2인이든 그 이상이든 1위와 2위 후보자를 선호하였던 유권자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sup>8)</sup> 하지만 경합성이 투표율을 높인다고 할 때, 이 신규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기존에 제3의 후보자를 지지하였던 부류의 유권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접전일 때 1위와 2위 지지자 중 처음에는 투표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지지자들이 단지 접전이라는 이유로 투표장에 등장한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기대효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유권자의 수가 조금 한계적으로 줄어드는 정도가 기존의 기대효용과 비용 간의 차이를 메울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접전이 된다고 하여도 1위와 2위 후보 선호자들 사이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1위와 2위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그 결과 선거경쟁구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가 아니라 선거 이전에 스스로 정한 선거의 기대효용과 비용이 더 중요하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선호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얻는 효용과 당선을 내심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얻는 효용 자체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유권자들에게는 선호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나 반대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은 차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위와 2위 지지자의 경우 당선가능성 여부로 투표참여와 불참을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지지자들의 경우 대개 자신의 지지자가 곧 당선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의 한 표가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이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 자체가 마치 이미 정하여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한 표를 행사할 때를 조건부로 자신의 지지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나 자신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을 때를 조건부로 자신의 지지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을(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계산할 때 이런 유권자의 경우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8) 이론적으로 볼 때, 2명의 후보자를 전제로 하는 투표이론에서 유의미한 유권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한 표가 지니는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투표자 개인의 투표가 지니는 기대효용 역시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유권자 개인은 투표에 나서게 될 인센티브가 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유권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다만 유권자가 지지하는 쪽의 표와 반대하는 쪽의 표가 서로 엇비슷하게 나아가는 경쟁구도에서는 지지표와 반대표가 서로 상쇄하게 되고 나머지 잔여표만 전체 유권자의 수로 계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결과 유권자의 한 표가 캐스팅보트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유권자의 명목상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론적으로 볼 때, 유권자의 수가 줄어들거나 경쟁이 접전일 때 투표를 할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유권자는 당연히 1위나 2위 후보자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가정한다.

1위와 2위 후보자 간에 선거가 접전일 때 이보다 더욱더 새로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1위와 2위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우선 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접전이 아닐 때에는 자신이 기존에 선호하던 3위 이하 후보자를 그대로 투표하려다가 접전이 되면서 기존의 최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차선으로 1위와 2위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1위와 2위가 얻게 되는 득표율의 합은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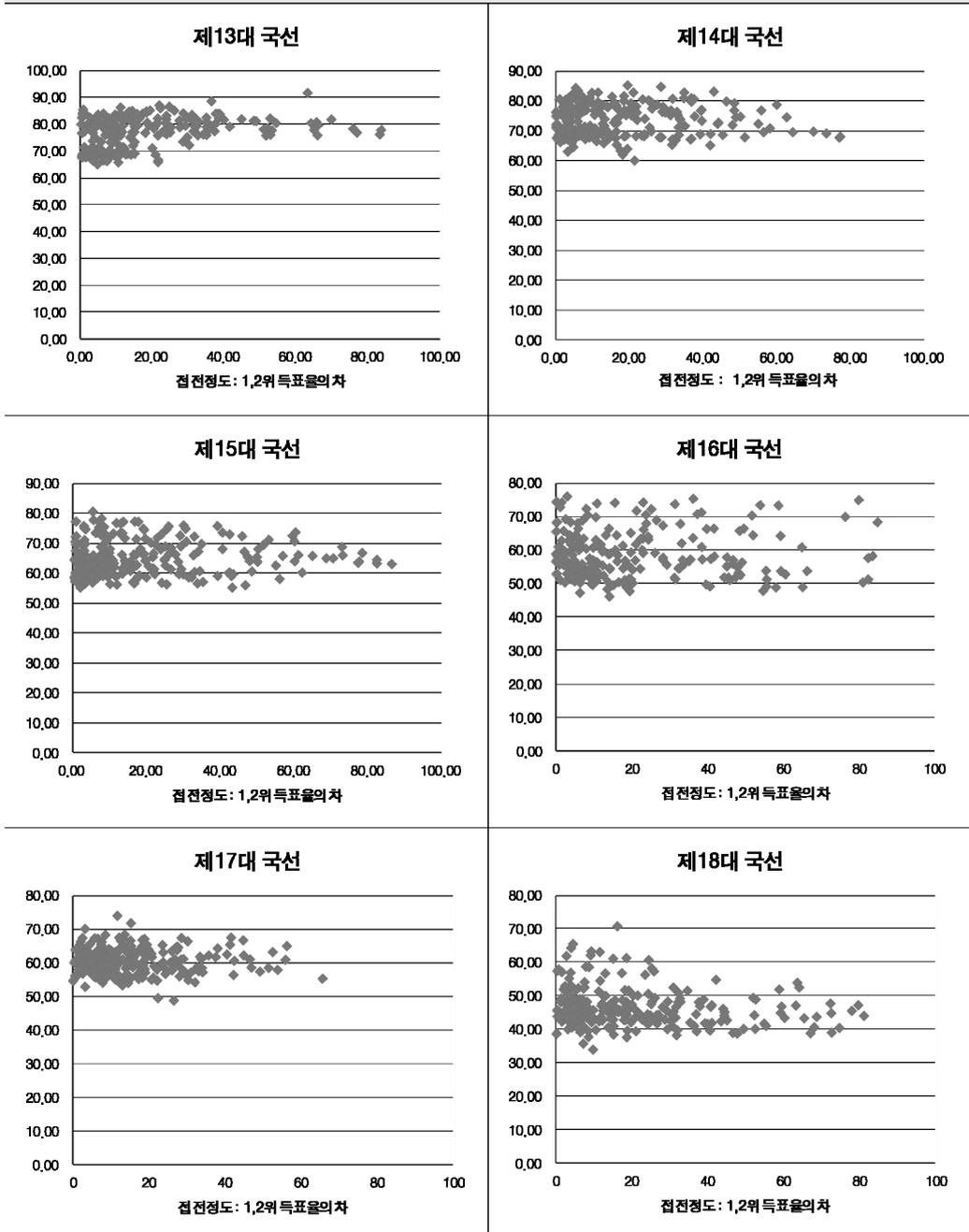
또 다른 가능성은 투표율 증가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것인데, 이들 3위나 그 이하 지지자들의 경우 자신의 선호도대로 투표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투표를 할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1위와 2위 지지자들에 비하여 자신의 투표여부와 상관없이 지지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의 저조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에 1위와 2위 후보자 간에 선거가 예상과 달리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이들 3위와 그 이하 지지자들 중 당선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미 투표참여를 결정하고 원래 선호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높아지게 된다. 즉, 3위 이하 소수정당 지지자 중 기존에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가 차선호도인 1위와 2위 후보가 박빙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신의 한 표가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들이 투표에 새롭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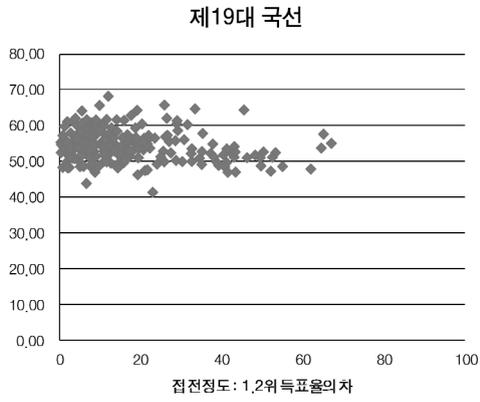
9) 실제로 제3의 정당지지자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계가 있지만, 3위 이하 후보자의 득표율을 가지고 1위와 2위 간의 득표율 편차를 나누어 가중편차를 계산하여 선거의 접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투표자의 후보자별 득표율 합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제3정당 지지자들이 투표하기 이전에 해당 선거구 선거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하지만 이것은 이상의 집합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부록] 전국 선거구 투표율과 경합도 스캐터플롯:  
국회의원선거별 및 경상전라지역 도와 광역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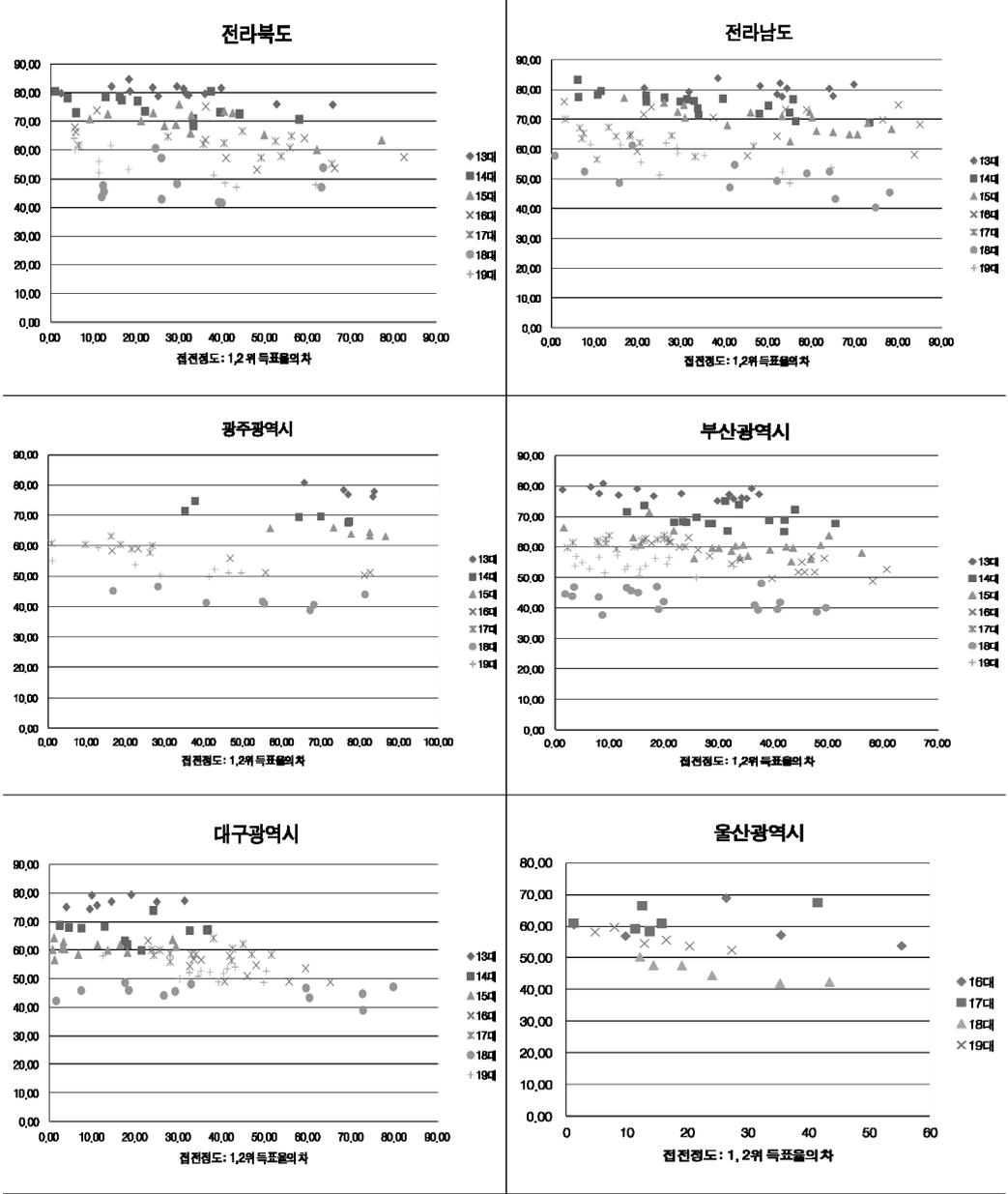
〈그림 1〉 전국 선거구 투표율과 경합도: 국회의원선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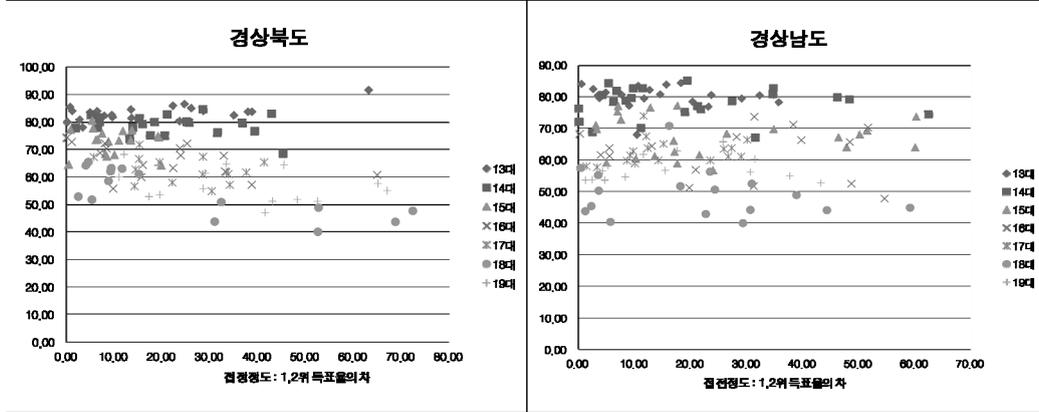
〈그림 1〉 전국 선거구 투표율과 경합도: 국회의원선거별



〈그림 2〉 역대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구: 경상전라지역 도와 광역시



〈그림 2〉 역대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구: 경상전라지역 도와 광역시



## 참·고·문·헌

- 강경태. 2008. “역대 한국선거(1987~2006) 투표율 분석.” 『아태연구』 15-2. 119-140.
- 김성은·엄기홍. 2013.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6-2. 69-93.
- 김 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1. 175-196.
- 김준석·김민선. 2009.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구의 투표율과 도전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3. 73-98.
- 류재성. 2009. “지역구 선거경쟁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14~18대 총선.” 『대한정치학회보』 17-1. 235-259.
- 박경미. 2014. “선거별 투표율 결정 요인: 서울시 선거구의 집합자료 분석(1987~2010년).” 『한국 정당학회보』 13-1. 95-122.
- 박명호. 2009.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3-4. 65-86.
- 윤성호·주만수. 2010.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2. 221-254.
- 윤종빈. 2008.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42-2. 283-299.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70.
- 이중수. 2000. “지방선거 투표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와 한국 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고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
- 이현우. 2010. “세대 투표가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원 EAI 오피니언 리뷰. 11. 1-11.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2. 51-74.
- 정대화. 2000.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 운동 단체의 정치 개입-투표율, 지역, 감정, 세대 교체와 총선연대 낙선 운동의 상관성.” 『동향과 전망』 45. 35-70.
- 조기숙·김선웅. 2002.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국정치학회보』 36-1. 163-183.
- 조진만.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2. 5-34.
- 조진만·최준영. 2006. “17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9-1. 203-221.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75-98.

-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1. 27-54.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115-134.
- 한정훈·강현구. 2009.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18-1. 51-82.
-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285-298.
- \_\_\_\_\_. 2008. “선거환경 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제18대 총선에서 영남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7-2. 83-109.
- \_\_\_\_\_. 2011 a.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년 지방선거의 변화와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20.
- \_\_\_\_\_. 2011 b.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45-4. 283-29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 Aldrich, John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246-278.
- Arnold, Felix. 2015. “Turnout and Closeness: Evidence From 60 Years of Bavarian Mayoral Elections.” DIW Berlin.
- Barzel, Y., and E. Silberberg. 1973. “Is the Act of Voting Rational?” *Public Choice* 16: 51-58.
- Blais, A., and R. Carty. 1990. “Do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ster Voter Turnou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771-802.
- Choi, Jungug. 2012. *Votes, Party Systems and Democracy in Asia*. New York: Routledge.
- Cox, G. W. 1988. “Closeness and turnout: A methodological note.” *The Journal of Politics* 50: 768-775.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231.
- Down,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 Dubois, Eric, and Matthieu Leprince. 2016. "Do Closeness and Stake Increase Voter Turnout? Evidence from Election Results in Small French Towns in Brittany." *Regional Studies*: 1-11.
- Endersby, James W., Steven E. Galatas, and Chapman B. Rackaway. 2002. "Closeness Counts in Canada: Voter Participation in Canadian Feder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4: 610-631.
- Fauvelle-Aymar, Christine, and Abel François. 2006. "The Impact of Closeness on Turnout: An empirical relation based on a study of a two-round ballot." *Public Choice* 127-3/4: 469-491.
- Filer, E., L. Kenny, and R. Morton. 1993. "Redistribution, Income, and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63-87.
- Hillygus, D. Sunshine. 2005. "Campaign Effects and Dynamics of Turnout Intention in Election 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1: 50-68.
- Jackman, Robert W. 1987. "Political Institution and Voter Turnout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2: 405-424.
- Jackson, Robert A. 1997. "The Mobilization of U.S. State Electorates in the 1988 and 1990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9: 520-537.
- \_\_\_\_\_. 2002.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Campaign Mobilization of Voter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4: 825-844.
- John G. Matsusaka. 1993. "Election closeness and voter turnout: Evidence from California ballot proposition." *Public Choice* 76: 313-334.
- Lazarsfeld, P., B. Berelson, and H.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houcq, Fabrice, and David L. Wall. 2003. "Explaining Voter Turnout Rates in New Democracies: Guatemala." *Electoral Studies* 23: 485-500.
- Matsusaka, J. G. 1993. "Election Closeness and Voter Turnout: Evidence from California Ballot Propositions." *Public Choice* 17: 313-334.
- Matsusaka, J. G., and F. Palda. 1991. *The Downsian Voter Meets the Ecological Fallac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The Fraser Institute.
- Millbrath, L., and M.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S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Nickerson, David W. 2005. "Partition Mobilization Using Volunteer Phone Banks and Door Hanger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1, *The Science of Voter Mobilization*. 10-27.
- Norris, P. 2004. *Electoral Engineering: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well, GB Jr.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17-43.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3.
- Shachar, Ron, and Barry Nalebuff. 1999. "Follow the Leader: Theory and Evide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525-547.
- Smith, Mark A. 2001. "The Contingent Effects of Ballot Initiatives and Candidate Races on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3: 700-706.
- Verba, S., and N. Nie. 1972.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Wolfinger, M., and S.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16년 10월 11일, 심사일자: 2016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7일

**[Abstract]**

## **How Electoral Closeness Affects Voter Turnout: Korean Assembly Elections from 1988 to 2012**

Choi, Jungug · Moon, Eun Young |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how electoral closeness affects voter turnout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1988 to 2012, using district-level election results. In our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voter turnout at the district level. The independent variable of primary interest is electoral closeness measured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vote share between the winner and the runner-up. The model has two control variables: regionalism and the nominal number of candidates. We confirm that close elections tend to increase voter turnout, as in other earlier studies. In particular, we find that electoral closeness still positively affects turnout, even when regionalism is placed under control.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andidates, however, does not seem to affect turnout, which needs further verification.

- 
- **Keyword:** electoral closeness, turnout, regionalism, the number of candidates, Korean assembly elections